산업통상자원부	보 도 자 료		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보도 일시	2023. 3. 14. (화) 16:00 < 3.15.(수) 조간 >	배포 일시	2023. 3. 14. (화)
담당 부서	통상정책국 구주통상과	책임자	과 장 이상헌 (044-203-5660)
		담당자	수석전문관 권순심 (044-203-5661)

통상교섭본부장, 네덜란드 통상사절단 방한계기 한·네덜란드 기업·기관 간 협력 양해각서 7건 임석

- 양국 관계 '전략적 동반자 관계' 격상('22. 11.) 후 경제 분야 실질협력 구체화 -

□ **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**은 **3.14(화) 리셔 스흐레이너마허(Liesje Schreinemacher) 네덜란드 통상·개발협력장관**과 **친환경 모빌리티, 신재생에너지 협력** 등 **7건의 협력 양해각서(MOU)* 체결식에 임석**하였다.

* 포스코 인터내셔널(POSCO International)-하르트 하이퍼루프(Hardt Hyperloop) 간 전략적 협력, 수열 및 대수층축열시스템(ATES) 한국시장 도입 및 운영 비즈니스 협력 등

○ **스흐레이너마허 장관**은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개최된 **한-네 정상회담 후속조치**의 하나로 **네덜란드 통상사절단*의 수석대표**로 3.13(월)~15(수) 일정으로 방한하였다.

* 네덜란드경영인연합회장, 투자청장, NXP(차량용 반도체 세계 1위) 공동대표 등 총 80여명 규모

○ 안 본부장은 이번에 체결된 MOU들이 지난 한-네 정상회담에서 '**양국 정상이 반도체, 스마트 농업·교통, 청청에너지 등 경제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**' 한 이후 구체적 성과로 구현되었음을 높이 평가하고, 향후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노력해 갈 것을 양국 관계자들에게 당부하였다.

□ 안 본부장은 MOU 체결식에 앞서 **스흐레이너마허 장관과 양자면담**을 갖고, **△교역·투자, △반도체·배터리, △원전, △수소·해상풍력**을 포함한 **청정에너지** 분야 양국간 경제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.

○ 양측은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**양국간 교역액*이 지속적으로 증가**하고, **투자**** 또한 **상위순위를 유지**하는 등 양국간 경제협력이 매우 견고하게 발전해 오고 있다고 평가하였다.

* 교역액(억불): ('18)117→ ('19)85→ ('20)102→ ('21)150→ ('22)160
- EU 27개 회원국 중 독일(337억불)에 이은 2위

** 한국의 對EU 투자(억불, '22.9월(누적) 신고기준) ①룩셈(352), ②네덜란드(224), ③아일랜드(99)
- EU 회원국의 對韓 투자(억불, '22.12월(누적) 신고기준) ①네덜란드(379), ②몰타(238), ③독일(180)

○ 양측은 **양국 간 경제안보 분야 파트너십**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하고, **반도체 생산장비 강국인 네덜란드**와 **반도체 제조강국인 우리나라** 간 **상호 보완적인 협력을 더욱 더 강화**해 나가기로 하였다.

- 이어 안 본부장은 EU가 추진 중인 배터리 법안('23년내 발효 목표) 관련 동향을 문의하면서 우리 배터리 기업들이 EU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만큼, **배터리 법안 및 하위규정 제정시 우리 입장이 적극 반영**되도록 네덜란드 정부의 협조를 요청하였다.

○ 안 본부장은 **한국의 우수한 원전사업 역량**과 **수소·해상풍력 등 청정에너지 정책에 대해 설명**하고 양측이 상호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**원전 및 수소·해양풍력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더 강화**해 나가기로 하였다.

○ 마지막으로 안 본부장은 **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**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설명하며, **네덜란드 정부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**하였다.

□ 안 본부장은 양자면담 직후 **스흐레이너마허 장관 및 양국 주요 반도체 기업인과 함께 '반도체 기업인 차담회'** 를 갖고, **양국간 반도체 협력 방안 및 반도체 산업에서의 주요현안에 대해 논의**하였다.

○ 양측은 **네측의 신규 반도체 수출통제 정책방향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**하였으며, 안 본부장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우리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, **우리기업의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상호 긴밀한 협의**를 해 나갈 것을 요청하였다.

○ 또한, 글로벌 반도체 장비 업계**에서 높은 위상을 차지하는** ASML社, ASM社에도 지속적 한국 투자 확대와 함께 **국내 반도체 기업과의 협력 강화**를 당부하였다.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